

“디지털 경제 전환, 소상공인 글로벌 경쟁력 갖출 기회”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재단 대표이사

경제를 진흥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는 듯하다. 세계, 국가, 지역,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관심은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를 수 없다. 잘 사는 지역은 글로벌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시스템 및 핵심 기업, 창의적이면서 생산적인 인재, 훌륭한 기반시설 및 용이한 수출 여건, 고부가가치 부존 자원이나 독보적인 매력 등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속해서 혁신하고 트렌드를 이끌어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그들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자본주의의 ‘박빙’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을 만들어냈다. 300여년의 시간 속에 이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일부 그 성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구조적인 틀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에 이견을 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상생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야 만들어지는 접점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다.

일자리는 이미 최고의 가치가 됐다. 미개발국에서 초강대국에 이르기까지, 농어촌에서 수도권 서울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광



김현성 대표이사

주의 입장에서 이보다 중요한 명제는 없다. 이들 세 가지 단어를 모두 담고 있는 광주시의 출연기관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다. 지난 2023년 8월 출범한 이 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김현성(52) 전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본부장이 임명됐다. 모두 중요한 사안인만큼 성과를 내기도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재단의 수장에 앉은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 이미 광고계, 정치계, 언론계 등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김 대표의 이력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72년

지자체, 민간소비 뒷받침해야... 지역화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복합쇼핑몰·전통시장 서비스 달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존 가능

생 김현성의 물음’을 참조했다.)
전교조 교사 복직운동을 하며 아슬아슬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 정치의 중요함을 깨닫고 선거운동원, 정당 대학생 모니터 요원 등을 맡았으며,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약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속에 국내 굴지의 광고기업에 인턴으로 입문해 경력을 쌓았다. 김대중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팀에 들어가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보는 이의 시각에서 공공캠페인의 틀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목을 받았다. 1% 기부 문화를 트위터에 옮겨 올린 글 하나로 1원씩 자발적 기부를 하는 ‘1원의 행복’을 이끌어 내고 모은 돈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상임이사로 있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결혼식 수익금 1%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익적 마인드를 중시했던 그는 공공 영역을 전문적으로 맡는 광고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다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해 SNS 캠페인을 맡았다. 이후 박 시장과 6년을 함께 하며 최연소 기획비서관, 디지털미디어팀장, 최후이자 마지막 디지털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당시 김 대표는 공공 데이터를 총망라한 디지털 시민시장상을 만들어 내고 ‘서울시 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디지털화를 주도했다.
서울시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종합편성채널의 채널로 출연해 문 대통령을 말로 호위한다는 의미의 ‘호위어(語)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 같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공익 우선 사고, 광고·이미지 구축·디지털에 대한 전문성, 현장에서 익힌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중소기업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내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디지털 혁신과 참여해 각계 전문가들과 ‘넥스트커머스’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디지털 경제(Diginomics, Digital+ Economics)시대 지역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상공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담양 출신인 김 대표는 아들 2명, 딸 1명을 둔 ‘애국자’로, 동향의 아내를 만나 24년째 살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현성 대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근태 전 의원을 가장 존경한다. 중학생 시절 담양에 유세를 온 고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3시간 기다려 들었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고 김 전 의원의 경우 ‘희망’이라는 팬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따랐는데, 진정성

과 진심이 남달랐다. 사실 정치계에 몸을 담은 것도 존경하는 이 두 분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보고자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책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말과 글의 균형이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내 삶은 물음의 바다에서 풍랑을 견디며 답을 찾기 위해 항해하는 쪽배와 같다”고 썼다. 이 문장들이 그의 지금까지 행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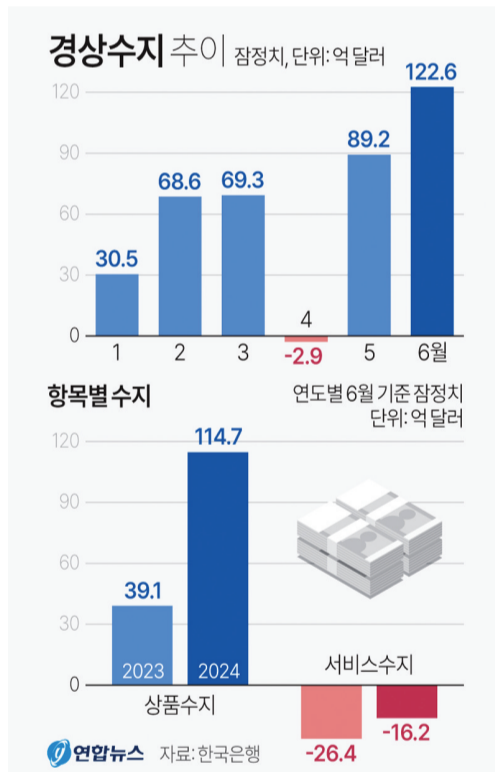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디지털이 왜 중요한가.

▲디지털 기술 변화가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이말로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 불통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조셉 스타글리츠(Joseph Stiglitz)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1%의 운명도 궁극적으로 나머지 99%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장의 실패를 예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경제시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월 경상수지 122억6천만달러 흑자...6년9개월만에 최대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서비스 수지 16억달러 적자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16년 6월(124억1000만달러)과 2017년 9월(123억4000만달러)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한은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전방산업 수요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며 “반면 내수 회복 지연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상품 수입 감소 폭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 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다. 이는 기존 경상수지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 279억달러, 하반기 321억달러로 연간 6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은은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 부장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투자 소득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1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도 2020년 9월(120억2000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6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1년 전(-26억4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한 달 전(-12억9000만달러)보다는 커졌다.
/연합뉴스

광주TP, 지역특화산업육성 국비 추가 확보

지역기업 육성 성과 인정받아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 국비에산 17억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다. 광주시 중심으로 광주테크노파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기업지원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지

역산업진흥원이 성과를 관리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 성과관리 전담조직 운영은 지역특화산업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평가지표 부문에서 신규고용 306명, 사업화 매출액 806억원으로 14개 시도 중 목표달성도 1위를 차지했으며, 사업만족도 역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성과는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그리고 여러 기업지원 기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자체-광주테크노파크-지역혁신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성금 기탁

광주지방국세청이 7일 집중호우로 주택 및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들과 피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금 500여만원을 7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루 아침에 일상을 빼앗긴 피해 이웃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양동구 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 익산시 등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많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금호타이어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후원

금호타이어는 8일 막을 여는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후원 업체로 참여한다.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610개팀, 1만2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금호타이어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학부모, 관람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부터 10일까지 금호타이어 전문가들이 타이어 점검, 공기압 보충, 밸런스 교정 등의 무상으로 제공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한국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2023 팀 차분 독립 원정대’를 후원하는 등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핫스퍼 FC의 공식 타이어 파트너로서 참가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으로 유소년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통해 꿈을 하나둘 이뤘다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대 2팀, 세계 최대 ICT 박람회 ‘CES 2025’ 참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무한도전 프로젝트 공모 선정 팀당 5000만원씩 지원 받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학생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ICT 박람회인 ‘CES 2025’에 참여하는 기회를 잡았다.
켄텍은 7일 ‘에너지공학부 소속 ‘UNLIMITED’·HYLOT’팀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4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팀 소속 학생 12명은 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를 참관하게 된다.
두 팀은 각각 ‘글로벌 탄소중립 산학협력 모델’, ‘글로벌 수소 기술 산학협력 모델’ 제안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UNLIMITED 팀장인 장원규 학생은 “세계 유수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RE100을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적 기술과 글로벌 산업 동향 속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공학도로서의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UNLIMITED 팀은 향후 한전, LG, 삼성의 기업부설연구소를



‘2024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HYLOT팀.

방문하고, KENTECH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는 CES 2025, UC버클리, 조지아텍 등을 방문하여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윤승현 지도 교수는 “이번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CES 2025 참관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들을 직접 경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은행권,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은행권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분할상환 등 3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선정산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이 만기를 최장 6개월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8.41 (+46.26)
↑ 코스닥	748.54 (+15.67)
↓ 금리(국고채 3년)	2.929 (-0.006)
↓ 환율(USD)	1374.65 (-0.95)